

‘한 집 건너 나홀로’ 광산구 우산동, 고독사 예방 주목

이달 말까지 1인 중장년 3천세대 전수조사...고립가구 조기발굴·예방 전국 최초 ‘엔딩서포트’ 사업 추진...정기 방문, 건강·안부 밀착 돌봄

고령가구와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광산구 우산동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 돌봄 선진 모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3000세대에 달하는 우산동 거주민 4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립·은둔 수준, 건강 상태 등을 살펴보는 ‘고립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지역이 우산동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우산동은 1인 가구 비중이 주민 2명 중 1명꼴인 49%(7372가구)에 이르며, 이는 광산구 평균 1인 가구 비율 37%(전국 평균 42%)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산동에선 연 평균 고독사도 5-7건에 이를 정도다.

우산동은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지난해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전국 최초로 ‘엔딩 서포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없는 독거 세대에게 생전 복지와 사후 행정처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관 공동으로 두렵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당 사업에는 우산동 지사협,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우리동네의원, 마을건강센터, 하남성심병원, 만평장례식장 등 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사시설 업체 등이 힘을 보태고 있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됐거나 보호자가 없는 650세대를 발굴하고, 평소 정기 방문 및 사후 유품품 정리, 사망 신고 등 사망 후 장례 처리 문제 등을 지원했다.

특히 우산동 주민 36명으로 구성된 ‘엔딩서포터즈’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150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밀착 돌봄을 제공했다. 홀로 살다 세상을 떠난 무연고 주민 10세대에는 병원비, 장제비, 유품품 정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관 공동 노력에도 여전히 공공영역 돌봄이 닿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우산동에서는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갈까 갈 보호자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홀몸 어르신이 연휴가 끝난 직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광산구 직원들이 광주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우산동을 찾아 ‘고립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도 발생했다.

광산구의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일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문제 인식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산동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엔딩서포터 사업을 올해 고독사 예방 정책사업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이웃이 참여하는 생전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1313이웃살림’ 사업과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찾고 이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우산동 관계자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마을 돌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서로배움터’ 운영 4인 이상 자율적 배움 활동

광주 광산구는 “오는 11월까지 누구나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목표로 ‘서로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로배움터’는 교수자, 학습자의 경계를 허물고 광산구민 누구나 4인 이상이 모여 교육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진행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다.

서로배움터 강사는 강좌 당 최대 10회까지 회당 3만 원(40분 이상)의 강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인문 교양, 건강, 스포츠, 문화예술, 악기, 노래 등 취미 생활에서부터 실생활에 관련한 교육까지 다양하다.

장소 역시 카페, 공공시설, 사무실 등 교육 내용과 편의에 맞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광산구는 현재 상반기 배움터(3-6월)를 모집하고 있으며, 분야별 3개씩 12개 배움터를 선착순 접수 받고 있다.

‘서로 배움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진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서로배움터’를 통해 광산구 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배움을 주도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여자태권도, 올해 첫 전국대회 선전

개인전 2위 1명·3위 3명, 단체전 2위 입상

광주 광산구는 “여자태권도 선수단이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23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2위 1명, 3위 3명, 5인조 단체전 2위 등 좋은 성적으로 선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산구 여자태권도 선수단은 정현지 선수(-49kg)가 개인전 2위, 강현주 선수(-46kg), 황지연 선수(-57kg), 박시현 선수(-73kg)가 각각 개인전 3



“집에만 있지 말고 건강체조교실 같이 가요”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주 화·목 체조·운동 프로그램 운영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모두가 함께하며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건강체조교실은 우산동 주민이 주도해 선정한 마을복지건강계획 건강의제 사업으로, 지난해 첫 시행 후 주민 만족도가 높아 올해 건강의제로 재선정됐다.

지난 7일 수량어린이공원에서 첫 교실을 연 우산동 지사협은 오는 11월까지 소공원을 활용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체조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는 주 1회 진행했으나 올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 2회로 확대했다.

특히 지역 고립 위험 가구를 살피는 ‘1313 이웃지기’와 연계해 대상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상담도 할 예정이다.

구회숙 우산동 지사협 위원장은 “건강체조교실을 통해 땀 흘리는 재미는 물론 주변 이웃과 어울리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함께 움직이며 모두가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18일 상임위원회의 누리집·유튜브 ‘인터넷생중계’

광산구의회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286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본회의는 지난해 7월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를 시작했다.

광산구의회가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생중계 확대를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도 장소나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인터넷 생중계’로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소통 강화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인터넷 생중계’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광산구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확인 선택하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이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